

“신심 내면 안 될 일 없어요”

일찍 너무나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여읜 고산 스님은 출가하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출가를 결심했던 분이다. 꿈에는 더러 어머니를 만나기도 했겠지만,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면 100일 관음기도를 모시기도 여러 차례였다. 1000일 관음기도를 올리기도 했으며, 지금까지 조석 예불 끝에 삼십분간 관음 정근과 발원문은 빠진 적이 없다. 스님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 한다.

고산 스님이 범어사에서 동안거 결계를 했을 때이다. 이때 가행정진까지 너끈히 해내었다. 입승스님이 죽비를 들고 돌아다니다 졸고 있는 고산 스님의 어깨를 힐끗 세 번을 내리쳤다. 그 죽비에 맞는 순간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한 생각이 번쩍 하고 일어났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진짜 나를 치지 못하고 송장만 치는구나”하고 큰소리로 외쳤더니 입승스님이 활을 했다. 입승스님의 활이 끝나기가 무섭게 “역부여시 도봉타월(赤復如是 掉棒打月, 또한 그와 같은 활은 방망이를 잡아 달을 치는 격이라는 뜻이라 했다. 그랬더니 조실스님께서 “니우끼 철봉 석인유혈루(泥牛喫鐵棒 石人流血淚, 진흙소가 쇠망이를 맞으니 돌사람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뜻이라 했다. 고산 스님은 조실스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간 뇌리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지나가서 큰소리로 “알겠습니다”라고 했다.

고산 스님은 은사이신 동산 스님에 대한 존경심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동산 스님은 대중이 차고 넘쳐도 방부를 받지 않는 일이 없었으며, 대중과 함께 예불과 도량청소도 하셨어. 은사 스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슬프거나 상관없이 예불에 빠지는 일은 없어요.”

고산 스님은 비구계를 받은 후부터 경(經), 율(律), 론(論) 삼장을 꾸준히 익혔다. 28세가 되던 1961년 직지사에서 고봉 스님으로부터 전강(傳講)을 받았다. 그때 학업을 증장시키기 위해 고봉 스님을 모시고 김천 청암사 극락전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고봉 스님의 명성이 자자한 터라 청암사에 비구 비구니 확인들이 오십 명 가량 모여들었다. 청암사에서 고산 스님은 강사로 임명돼 자신의 공부를 더욱 증강시킬 수 있었다.

고산 스님은 1966년 고봉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새벽 예불 후 좌선 중에 출현한 한 경계가 있어 계승을 지었다.

심행일장공(心行一場夢)
식심즉시각(息心卽是覺)
몽각일여중(夢覺一如中)
심광조대천(心光照大千)
마음 작용은 한 바탕 꿈이요
한 마음 된 것이 곧 잠결 것이라.
꿈과 잠결이 한결같은 가운데



마음 광명이 대천세계에 비추도다.

고산 스님은 계승을 받고 나서 “이 우주에 오직 나 하나뿐이라”고 했다. 그러자 고봉 스님은 “이제 됐다. 앞으로 매이지 말라”면서 인가하셨다.

스님은 강사, 율사, 선사로서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 여쭙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용력가중배 사력십중배(用力加重倍 死力十重倍)라는 말이 있어요. 힘을 쓰면 평소보다 몇 배의 힘이 나오고, 죽을 힘을 다하면 평소보다 열배의 힘이 나온다는 말이야. 사람이 신심을 내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고산 스님은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조발심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학생이 입학할 때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우등생으로 졸업 못할 사람이 없고, 결혼할 때의 마음으로 산다면 써울 일이 없고 이혼할 일이 없을 것이며, 회사가 임사할 때 마음으로 근무한다면 회사도 발전시키고 진급도 할 것이라.

하는 일이 사들하게 느껴질 때면 ‘첫 마음’이 어땠는지를 돌이켜볼 일이다. 첫 마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한다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날마다 새로운 날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45. 인간문화재 이만봉 스님

만봉(萬奉, 1909-2006) 스님을 처음 뵈게 된 것은 신촌 봉원사에서다. 법사 임석진 스님이 만봉 스님 댁에서 하숙하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과년한 따님이 시집도 가지 않고 아버지와 스님을 시봉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인상이 특이하고 웃음이 호젓스러워 잘 잊혀지지 않는다. 키가 훨씬 크고 녹라의상에 홍가사를 입고 높은 곳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틀림없이 16나한 가운데 한 분으로 보인다. 세치 눈썹이 좌우로 길게 뻗어 내리고 이마가 툭 튀어나왔으며, 귀 뒤에 큰 혹이 달려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아 놓아 내가 인간문화재가 된 것이야.”

하고 껌껌 웃으시면 좌중이 모두 박장대소를 한다. 40년 동안 거의 다달이 보였지만 한 번도

사, 천축사, 보문사, 남한산성, 경회루, 경복궁, 보신각, 봉원사와 금강산 표충사, 양주 회암사, 승주 선암사 등 전국 유명 사찰과 중요 문화재를 단청하고, 월남 평화사까지도 단청했다.

명산 각처에 있는 패불과 후불



내 시봉을 10년 동안 할 수 있겠느냐?” 하시며 받아주었다.

이튿날부터 청소하고, 차 달이고, 화필 색상 심부름을 하다가 들어 온지 1년이 돼서야 비로소 금구기를 시켰다.

“어떻게 사람이 될 것 겁스니까?”

“사람노릇 시키기 위해 1년 동안 시봉을 시켰는데, 다른 시봉이 들어 왔는데도 내 시봉은 그 애가 하고 있어. 참으로 한 자세로 앉아 금구기가 쉽지 않는데, 이놈은 한 번 없으면 5000번씩 문제 없이 해 내거든. 10년간 이런 식으로 가면 사람 뿐 아니라 금어(金魚)도 될 것일세.”

스님의 교육정신은 화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이 되어 한다는 것이다. 자고 나면 남에게 신경 쓰지 않게 옷 갈아입고, 방 청소하고, 밥 차려 먹고, 직장에 나가 자기 자리에 앉아 자기 할 일 잘 하는 사람, 직장에

먼저 사람 되라 가르치던 만봉 스님 “단청 불화 자체가 생불”

화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정심(靜心)의 속명(속명)은 복인(福印)이야. 어떻게 하룻 저녁 사이에 그렇게 빛기도 어려운 큰스님의 제자가 되느냐 말이야. 10년, 20년 이 돼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자네를 큰스님의 전생(轉生) 자식으로 생각하니 잘 모시게.”

항상 다독거리 주시며 격려해 주셨다.

만봉 스님은 1909년 서울에서 3대 독자로 태어나 명화원 김예원 스님에게 득도했다. 집에 있으면 명(命)이 짧아 일찍 죽게 된다고 해 출가했다고 한다. 17세에 불교강원을 나와 2년 동안 보살상 1000장, 불상 1000장을 그려 금어(金魚)가 됐는데, 일 거리가 단청보다는 불화가 많아 단청장으로 인간문화재가 됐으나 두 가지를 겸하고 있었다.

단청은 아버지 이윤식씨로부터 물려 받았다고 한다. 공주 마곡사, 서울 경국사, 도선사, 봉은

당화, 신증탱화도 많이 그렸다.

특히 백련사, 봉원사, 안장사 등에 모신 104위 신장은 독특한 작품이다. 모습은 위엄스럽고 함마적(降魔的)이어야 하기 때문에 뒤틀린 청룡과 번쩍이는 칼을 들게 해야하므로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 30여년 전 홍창원 전수자의 결혼식 주례를 서게 됐는데, 스님이 정신적인 아버지로서 친 아버지 보다 더 깎듯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모셨다. 나중에 들으니 인식·우일과 외국인 부라이언 베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르쳐 전수자가 되게 했다 한다.

스님은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전시회를 가져, 유네스코에서까지도 초청한 바 있다. 20여년전 불천동 구암사에 가니 어떤 보살님이 놓아 자 제분을 데리고 와 앉길 격정함으로, “무슨 재주가 있느냐?” 물으니, “그림을 잘 그립니다” 해 스님에게 데리고 갔더니 “네가

나가서도 선·후배를 잘 알아 마음을 거슬리지 않고 전후·좌우·상하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최고의 인격이라 생각한다. 선(禪)을 하는 사람은 좌선으로서 행업(行業)을 삼고, 열렬하는 사람은 열불로서 업을 삼듯이 스님은 그림 그리고 단청하는 것을 한 가지 수행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청과 불상·탱화 그 자체가 생불(生佛)로 이해된다고 했다.

스님의 자제분 가운데는 3남매가 있는데, 큰 자제분은 미국 LA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서 용운사라는 절을 지어 포교하고 있고, 둘째는 금어가 된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따님은 결혼하지 않고 평신도 수행자로서 화실에 들어와 공부하는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98세 고령으로, “무슨 재주가 있느냐?” 물으니, “그림을 잘 그립니다” 해 스님에게 데리고 갔더니 “네가

운달 돈 해에 소장하시면 좋습니다.

액운을 소멸시켜주는 금동반야심경

금동반야심경을 소장하시면...

황금색은 재앙을 막아주고 기운을 모아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정에 금송아지나 금두꺼비를 소장하는 유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금동 반야심경은 사람의 기를 북돋워 주는 것은 물론 모든 액운을 소멸시켜 주며, 특히 대만아경의 정수만을 가려 낸 경전으로 대학입시 자녀를 둔 가정, 사업변장을 기원하시는 가정, 집안에 삼재가 있으면 불자님 가정에 꼭 필요한 소장품입니다.

- 크기 : 27.5cm×11cm
- 재질 : 24K 순금도금
- 보금특가 : 170,000원
- 사찰단위 단체주문 환영
- 공로배, 감사패 대응으로 좋습니다.



금동반야심경 팔만대장경판(국보 제32호) 축소판 ▲



금동신묘장구대다라니

금동신묘장구대다라니를 소장하시면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무량삼매와 번재(번가) : 이치를 분명하게 판단하여 분별하는 재주를 얻으며, 모든 구하는 바를 얻게 되고, 여자가 남자로서 나기를 원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일체 중죄와 삼보를 훼손한 죄도 소멸된다.

- 크기 : 지름 10cm
- 재질 : 24K 순금도금
- 보금특가 : 90,000원

생전예수재의 공덕 (법공양판)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빛과 광, 예수재의 의의, 저승을 다녀 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요약해서 수록하여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부 이상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사륙배판, 80페이지
- 정가 2,500원



생전예수재 용품

내용물 : 합할소 · 금강경 · 만관 · 금강경찬 · 칠마 · 천수다라니 · 돈다라니 · 소다라니 · 탑다라니 · 개팔천 수생경 · 지전



예수재 행사 장엄등

※ 일반 행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행드백에 쓰~옥 들어가세요!

법공양으로 좋은 한장본 불서



◆ 크기 : 10cm×17.7cm

- | | |
|--------------------------|----------------------------|
| • 관세음보살보문품 90페이지 3,000원 | • 천수 · 반야심경 100페이지 3,500원 |
| • 예불독송경 89페이지 3,000원 | • 천수 · 관음경 110페이지 3,500원 |
| • 불설아미타경 86페이지 3,000원 | • 무상법집경(영가전) 110페이지 3,500원 |
| • 예불대참회문 86페이지 3,000원 | • 천수 · 금강경 166페이지 4,000원 |
| • 천지팔양신주경 94페이지 3,000원 | • 금강 · 아미타경 162페이지 4,000원 |
| • 지장보살예찬문 78페이지 3,000원 | • 지장보살본원경(상) 163페이지 4,000원 |
| • 금강반야바라밀경 144페이지 3,500원 | • 지장보살본원경(하) 175페이지 4,000원 |
| • 부모은중경 102페이지 3,500원 | • 지장참회예문 186페이지 4,000원 |
| • 약사여래본원경 104페이지 3,500원 | • 관음참회예문 190페이지 4,000원 |

전권(18권)을 구입하시면 20% 할인해 드립니다. (63,000원→50,000원)